

2011
Annual
Report

theme 1

Eco+



theme 2

So,CIAL



theme 3

Technofying



urtrend.net

Contents

2	Editorial
6	Theme 1. Eco+
30	Theme 2. So,CIAL
54	Theme 3. Technofying
81	urrentrend Crystal Ball
83	Home Life 2020
84	> Mind Watching
98	> Expert's View
107	> 2020 Future Home Life Scena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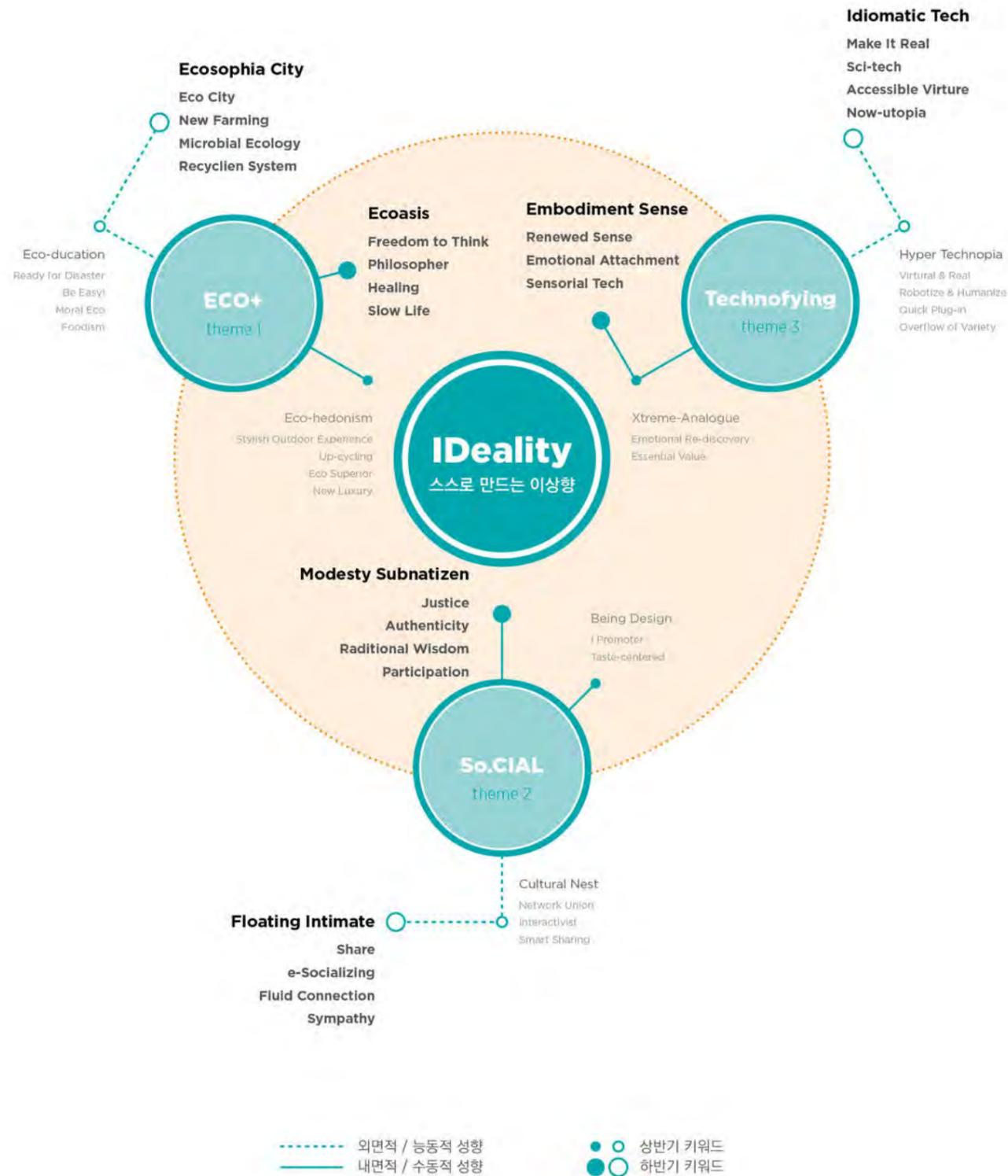
나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이상향을 찾는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예측 못한 이상 기후와 금융 위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운 살얼음판 같은 불안과 긴장감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외면해온 기본적인 욕구와, 시간에 쫓겨 누리지 못한 평온함과 충만감을 되찾기 위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반성과 고민에 빠져 들고 있다.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며,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이상향을 나의 일상 속으로 옮겨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여 그 소중함을 잊고 있던 일상 속 평범함에서 비범함과 진정한 가치를 깨우치며, 그 속에 차곡차곡 나와 내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소소한 역사와 스토리를 담아 나가고자 하는 능동적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나만을 위한 온전한 휴식과 행복감을 줌과 동시에, 타인의 삶을 배려하고 그 삶의 터전이 되는 도시와 자연을 조화롭게 포용하여 불안과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이상향을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다.



스스로 만드는 최상의 이상향

기술과 자연,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나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이상적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함과 동시에,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의미 그리고 자아 성찰과 정서적 소통을 통해 진정한 행복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상(理想)향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theme 1 / ECO+

자연과 결합된 도시생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이상적 삶을 누리고, 일상적인 자연과의 정서적 소통을 통해 위안을 얻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내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theme 2 / So,CIAL

시공간을 초월한 동료와의 공모와 재결합을 반복하며 유동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되돌아 보며 공동선의 이상향을 만든다.

theme 3 / Technofying

개인화된 첨단 기술로 구현되는 최상의 가상 현실과 인간 본연의 오감을 자극하여 느껴지는 공감을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추구한다.

theme 1

Eco+

Ecosophia City

: 도시와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적 도시

Eco City

New Farming

Garden

Recyclien System

Microbial Ecology

Ecoasis

: 정신적 위안과 치유를 위한 휴식처

Meditation

Philosopher

Freedom to Think

Slow Life

Healing

피폐한 도시 생활에서 일탈의 수단으로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자연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자체가 자연의 일부로 회귀하고 자연
그 자체가 도시적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한다.



theme 2

So,CIAL



theme 3

Technofying



theme 2

So,CIAL

Floating Intimate

: 필요에 의해 공모와 재결합을 반복하는 유동적 동반자

Share

e-Socializing

Fluid Connection

Sympathy

Modesty Subnatizen

: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 선(善) 추구

Justice

Authenticity

Radical Wisdom

Participation

개인의 힘이 커지는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 수많은 유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발적인 공동 참여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신뢰가 바탕이 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의 사회를 추구한다.

theme 1

Eco+

theme 3

Technofying



FLOATING INTIMATE

Keyword / Share, Multi-Community, a-Socializing, Fluid Connection, Sympathy

혼자만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필요에 따라 함께 할 동료를 찾는다.
온 오프상의 소통을 즐기고, 자의적 필연적인 공모와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공감을 얻고 서로간의 유동적인 동반자가 된다.



이제 카풀도 스마트하게

고유가 시대, 수입은 그대로인데, 기름값은 자꾸만 오르고 내려올 줄 모른다. 더군다나 커다란 차를 혼자 타려니 기름이 더 아깝다. 그래서 카풀이 늘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춰 어플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비아카풀'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 인터넷 커뮤니티의 카풀이 게시판 위주의 카풀 정보가 공유되었던 것에 반해, 이 어플은 스마트폰의 특성을 살려 구글 위치정보시스템(구글맵)을 기반으로 자신 주변의 카풀정보를 지도로 보여준다. 목적지에 따른 유류비도 계산해주어 탑승자와 운전자가 유류비를 함께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탑승자는 운전자의 정보를 보고 카풀을 요청할 수 있고, 운전자는 탑승자 정보를 보고 카풀 요청을 승낙할 수 있다. 쪽지기능으로 카카오톡처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탑승자를 위한 안심메시지기능도 있다.

Keyword / 카풀, 카풀어플, 비아카풀, 스마트폰
 Category / Internet&Mobile, Society



소송도 모이면 싸진다. 소송의 소셜커머스

소송도 소셜커머스로. The More, The Easier, The Cheaper. '법대로 해' 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용품에서 레스토랑, 여행까지 확장되던 소셜커머스의 개념(모이면 싸진다)이 법률소송에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관련된 일들은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리게 하는 전문영역이었으나, 최근 아이폰 집단 소송(www.sueapple.co.kr)에서 보여지는 소비자들의 행동은 기존의 이러한 대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애플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집단 소송에 나섰다. 아직 변호사 배불리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거나, 승소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점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이 큰 흐름인 만큼,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의 소셜 커머스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Keyword / 소송의 소셜커머스
 Category / Technology, People, Society



가치 렌탈 서비스. 특별한 경험을 대여합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명품소비는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주변을 보면 어떻게 명품 백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 싶은 친구도 하나 둘 있다. 이러한 호기심에서 발견하게 된 명품 대여 서비스는 명품을 갈망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일반 직장인들에게 고가의 명품가방을 저렴한 가격(5만원)으로 2박 3일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호화 요트나 캠핑카의 렌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의미에서 벗어나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누리려는 요즘 소비자들의 합리성이 반영된 형태일 것이다.

Keyword / 가치대여, 경험을 인터넷 쇼핑하다, 프리미엄 라이프를 빌려오다
 Category / Economy, Pop&Culture, Health, Leisure



우리들의 관계도 SPA와 같다면? 동거2.0

2000년대 초반,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기억하는가. 젊은 남녀의 '동거'가 안방극장의 소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SNS/스마트 디바이스들과 더불어 더욱 개인화되어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동거(Co.habitation)의 개념 역시, 새로운 관계 군을 형성, 번져가고 있다. 가족 및 사회 연구학자들은 이같이 진화한 동거개념을 'Stay Over'라 일컫으며, 기존 동거관계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기존의 동거가 연애에서 시작하여 결혼을 향하기 위한 중간지점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Stayover군들은 영원한 관계와 종속 그리고 간섭과 흔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진다고 한다.

Keyword / 관계
 Category / Society



공간을 공유하고 소유하다

현대인들은 나만의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홀로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프라이버시 존중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요소를 공유해 공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한 경향은 공간활용에도 적용되어 이중적인 공간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감춰져 왔던 공간은 공유되고 있으며, 오픈된 공간에서는 나만의 장소를 소유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트위터, 미투데이 등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성과 현재를 공유하며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반면,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완전히 독립되기보다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가구, 공간들이 주목 받고 있다.

Keyword /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 트렌드
 Category / Art&Design, Housing, People



내 배우자의 또 다른 배우자, 오피스 스파우즈

1987년경 칼럼니스트 데이비드오웬이 처음 사용한 말인 '오피스 스파우즈'는 진짜 부인이나 남편이 아닌 직장 내에 별도로 있는 배우자 같은 존재를 말한다. 최근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조사한 설문 내용을 보면 직장 내에서 남자는 2명중 1명, 여자는 3명중 1명이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의 경우 집보다는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같은 일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오피스 스파우즈와의 적정선을 지키고 가정에서는 실제배우자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오피스 스파우즈 활용법이 아닐까?

Keyword / 오피스스파우즈, 데이비드오웬, 신조어
 Category / People, Society

발전하는 UCC, 함께 차리는 유익한 인터넷법상

인터넷강국이라 불릴 만큼 국내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참여도 또한 높아졌다. 2006년 무렵 떠오른 UCC동영상을 시작으로 위키피디아, 블로그, 지식인, 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의 UCC가 인터넷상에 넘쳐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등의 개인 휴대용 인터넷기기의 보급화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의 대중화로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지하철00남, 지하철00녀 등의 동영상도 올라오면서 사회발적 역할과 동시에 인권침해논란, 무차별적 마녀사냥 등과 같은 어두운 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 야누스의 또 다른 면, 긍정적인 부분도 눈에 띈다. 2011년 여름,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콘텐츠를 그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고 구글맵스와 연동시켜 Information UCC인 폭우피해지도도를 만드는 등 언론이나 정부보다 빠르고 현실감 있는 정보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국가나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한정적인 인력보다 훨씬 많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산해내고 소비하고 있기에 가능한 얘기이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폭설 피해지도가 나올 것 이고 신종질병이 발생하면 질병확산지도 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

Keyword / 폭우, UCC, SNS
 Category / Pop&Culture, Internet&Mobile, People, Society



'정직한 디자인'의 시대

있는 그대로, 있는 만큼만,
솔직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정직한 디자인

Keyword / 다큐멘터리, 패션, 사토리얼리스트, 디터 램스, 정직
Category / Politics, Pop&Culture, Art&Design, People, Society

글 / 최태혁 (urtrend 칼럼리스트)
b 매거진 편집장

지난해 국내 TV 방송계에는 때 아닌 명품 다큐멘터리 전쟁이 벌어졌다. MBC는 '아마존의 눈물'과 '북극의 눈물'을, KBS는 '차마고도'와 '누들로드'를 그리고 SBS는 '최후의 툰드라'를 내세웠다. 그 밖에도 초대형 다큐는 아니지만 KBS의 '인간극장'과 '다큐3일', SBS의 '희망 프로젝트' 등 시간이 지날 수록 다큐멘터리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다. 현재 SBS에서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짜'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예능에 다큐멘터리 형식을 가미해 기존에 볼 수 없던 구성을 선보이며 젊은 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루함의 대명사 썸으로 여겨졌던 다큐멘터리가 더욱 부상한 데는 제작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시대의 어떤 요구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다

다큐멘터리란, 제작진의 개입과 연출을 최소화한 체 대상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사실적으로 얻어내는 방식이다. 포토그래퍼 스콧 슈만은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패션에 응용했다. 그가 운영하는 패션 블로그 '사토리얼리스트, www.thesartorialist.blogspot.com'은 2009년, 2010년 연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블로그로 뽑힌 바 있다. 스콧 슈만이 사토리얼리스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패션 잡지나 패션 쇼에서 보이는 패션과 실제 길거리에서 만나는 패션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 대다수가 그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 패션쇼 런웨이나



1. www.thesartorialist.blogspot.com



2. 스위스 아미나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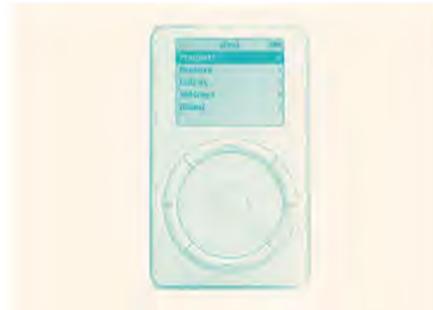
3. 디터 램스(Dieter Rams)가 디자인한 브라운 제품



4. 마키시 나미(Makishi Nami)의 전반



5. 후지 파인픽스 X100



6. 애플의 아이팟

theme 2. So,CIAL

미디어에 모델이 걸치고 나오는 화려한 패션을 실제로는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 말이다. 이에 그는 전 세계를 돌아 다니며 길에서 갑작스레 만나게 되는 '진짜' 패션 고수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점차 입소문을 타며 세계적인 블로그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오랫동안 봐 온 친근한 제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일명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는 스위스 아미나이프²는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그대로를 밖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한번만 봐도 누구나 그 사용법을 알 수 있어 제품 사용법 파악에 드는 에너지 낭비를 극도로 줄여준다. 주로 외부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꺼내 써야하는 이 같은 제품군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전기가 언제 끊길 지, 빛물이 언제 들어올 지 모를 상황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이나 하나의 기능을 찾기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디자인이 접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다

올해 초 대림미술관에서 열린 디자인 전시 <디터 램스의 디자인 10계명>전은 내용의 훌륭함은 물론, 흥행 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디자인 10계명'³이란 브라운에서 40여 년 동안 디자인 디렉터로 있었던 디터 램스가 자신과 직원들에게 강조한 '행동의 기준 열 가지'를 말한다. 그 중 '좋은 디자인은 정직하다 Good Design is Honest'라는 항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원래 기능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사용자에게 헛된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의 디자인은 '기능주의'라는 말로 흔히 표현되지만, 디터 램스 디자인의 가치는 바로 그 '정직함'에 있다. 제품의 핵심적인 기능을 '꼭 필요한 만큼만'⁴ 표현한 것에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거나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등의 그의 다른 이론들은 사실 정직한 행위를 통해 모두 가능하다. 그의 말처럼 꼭 필요한 만큼만 디자인한 사례는 주로 '기계'에서 더 발견된다. 카메라⁵가 대표적이다. 미니멀 디자인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도 유독 카메라에 만든 그 흔적이 적게 남아 있다. 눈을 렌즈에 대고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러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넣기보다 꼭 필요한 기능부터 우선해 설계해야만 했을 것이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은 제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애플의 디자인 또한 미니멀이 아닌 정직한 디자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로 판단된다. 아이팟⁶에 적용된 원형 휠 역시 인터페이스의 개요는 물론 애플의 기업 철학을 꼭 있는 만큼 표현한 애플 최고의 디자인 아이콘이라 말할 수 있다.

관계에 솔직하다

하라 켄야가 디자인한 우메다 병원⁷의 사인 시스템은 정직한 디자인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산부인과인 우메다 병원의 모든 사인 시스템을 가장 때가 타기 쉬운 흰 천으로 감싸 그 위에 프린트를 입혀 디자인했다. 일반적으로 때가 탈 것을 우려해 가장 때가 잘 타지 않고, 먼지가 묻더라도 잘 지워지는 소재로 만드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가장 때가 타기 쉬운 것을 늘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이곳을

TALK

“즐기며 함께 일하는
미래의 홈 오피스는?”

짜증나는 러시아워, 천편일률적인 사무실 공간은 이제 지겹다!
나만의 안락한 공간에서 내 스타일대로
일하며 돈 버는 삶!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간과 시간이 자유롭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오피스 라이프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자.

Tell Me ur Trend!

즐기며 함께 일하는 미래의 홈 오피스는?

기술의 발달로 직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도
자신만을 위한 오피스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의 오피스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본다.

Focusing 01

I really have a lot of ideas.
I ignore why or for what
good use.

성별: 남
연령: 40대
직업: Artist, Professor



I'd love
a castle made of stone,
hidden on top of a steep
hill or forest, detachable
and hunted with ghosts -
but connected to internet with
digital filter. I love to have studio
and home in the same place or nearby,
I hate to commute; I try to do all I can,
so I won't need to.



몽상가

성별: 여
연령: 20대

미래에는 한 곳에서 진득이 일하기 보단 자신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며 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동성을 겸비한 캠핑카 같은 오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VALUE VOCA

Talk에서 사용한 유저들의
어휘와 이미지 분석

Value Voca

VALUE VOCA DICTIONARY 가치어 사전

토크를 진행하면서 유저들이 사용한
새로운 가치어들을 모아 축적된 urtrend만의 사전

무선 사무실 | Wireless Office

블루투스 및 원격 기술의 활용으로 배선이 하나도 없는 깔끔한 업무공간.
더불어 제어시스템 역시 하나의 컨트롤러로 제어 가능한 기능은 필수

워킹맘 데스크 | Working Mom Desk

아이를 돌보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기술이 돋보이게 설계된 책상
(책상에 흔들 아기 침대가 부착이 되어 있거나 우유병 꽃이가 달려있는 등)

3D 화상벽 | Real Wall

오피스나 집의 벽면을 실제상황처럼 디스플레이 해주는
3D기술이 탑재된 화상 벽, 화상 채팅은 물론 완벽한 화상 회의 및
놀이와 게임까지 가능한 가상시스템

취향리더기 | Taste Reader

성격, 기호, 입맛 등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를 알려주는 스캐너

모드 제어 책상 | Mode-Control Desk

혼자 일하는 공간에서 졸면 깨워주고, 할 일이 많을 때에는
Tension(긴장감)을 조절해 주는 책상과 의자

침대의자 | Bed Chair

완벽히 젖혀져 침대처럼 누워 잘 수 있도록 설계된 의자로 자세에 구애 받지
않고자 하는 유저들의 자유로운 포즈를 수용하는 인체공학적인 의자

갤러리형 오피스 | Galley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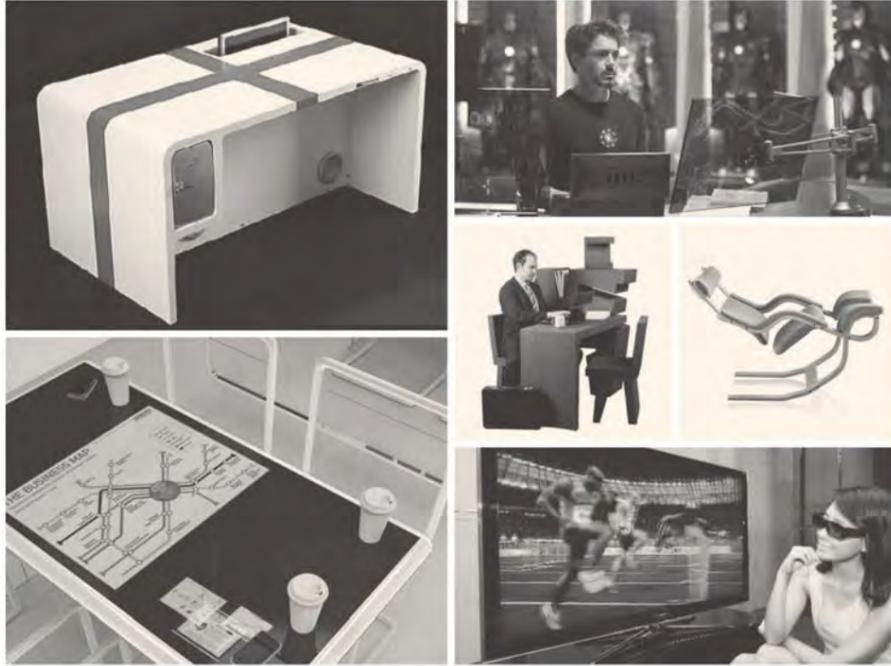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먹을 수 있는 간식 저장고가 달려 있는
개인용 업무공간

IMAGE COLLAGE 이미지 콜라주

오감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진 주요 감성 어휘와 이미지 콜라주

VISION

트랜스포밍 데스크
인체공학적인 취침용 의자
조립식 포터블
3D 영상의
총천연색의
실재 같은
스마트 그리드
인포그래픽적
클라우드링



TEXTURE

비물질적인
가벼운
폭신한 베드형
엄마 품 같은
친구의 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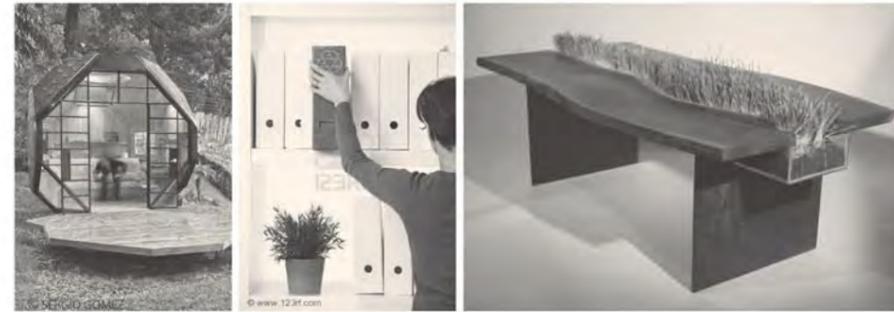
HEARING

띠링 메시지 오는 알림
동료의 목소리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는



SMELL

청정한 내음
숲속 향기



TASTE

먹을 것이 구비된
카페 같은



theme 3
Technofying

Idiomatic Tech

: 일상 곳곳에 들어온 테크놀로지

Make it Real

Sci-tech

Accessible Virture

Now-utopia

Embodiment Sense

: 감각을 자극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의 시적 접근

Renewed Sense

Emotional Attachment

Sensorial Tech

개인화, 일상화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어 익숙하게 새로운 가상 현실을 받아들인다. 인간 본연의 감각을 자극하여 몰입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theme 1
Eco+

theme 2
So,CIAL





HOME LIFE 2020

1

-

MIND WATCHING

show me ur home life

2

-

EXPERT'S VIEW

vision of home life 2020

3

-

2020 FUTURE
HOME LIFE SCENARIOS

MIND WATCHING

"Show Me ur Home life"

주거 환경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반영되어있다. 삶이 바뀌면 주거 형태도 변화하고 주거 환경도 변화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적 가치 확산으로 가족 제도가 변하고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화, 만혼화의 사회변화를 대표하는 가족 형태로서 제 2의 인생을 누리는 시니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패밀리, 혼자의 삶을 즐기는 싱글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지향하는 라이프에 대한 숨겨진 니즈를 분석한다.

Show Me ur Home life!

시니어 타운 The CLASSIC 500 거주



건국맨
성별: 남
연령: 70대

의료 케어
사교 활동
심리적 애착

시니어 타운에 거주한 지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해서 기타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더 활발히 활동을 하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자 꿈꾸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도심 속으로 들어와 살고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가까운 수록 생활이 편리하고 사회와 접촉할 기회도 많아지니깐요.

우리 집은 50층이라서 서울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오랫동안 몸 담았던 모교가 집에서 내려다 보여요.

예전에 일했던 곳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참 기분이 좋아요.

무엇보다 **의료, 운동, 치료 등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을 선택한 이유도 건강 때문이죠. 몇 년 동안 몸이 안 좋았는데 시니어 타운에 들어오면서

개인 건강 관리를 받으며 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니 약 중복의 걱정도 없어요.

감성여성
성별: 여
연령: 60대

일주일에 3번은 영어 강의를 나가요. 그 외 시간은 부부동반으로 여러 활동을 즐기죠.

이 곳 **거주자들은 모두 가족** 같아요.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오는 날엔 이웃 집 문고리에 걸어 나누어줍니다.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고 오래된 가족 같이 느껴져요.

시니어 타운에 거주하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의료 케어 인 것 같아요. 시니어를 위해선 **뛰어난 의료 시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동호회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통합 서비스로 쉽게 생활하는,
도심 속 시니어타운 (THE CLASSIC 500)

지하철 역과 바로 연결되는 이 곳은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생활 공간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휠체어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넓은 복도, 리모컨으로 자동 컨트롤되는 침대가 있다. 거실에는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 긴급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다. 방 열쇠인 스마트 키는 긴급상황에 도움을 청하거나 레스토랑에서 결제 수단으로도 쓰이는 등 통합 서비스의 열쇠도 된다. 근처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개인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영양처방 및 식사 관리 프로그램까지 같이 제공된다. 북 카페, AV룸, 도서관, 노래방 등 문화시설과 친목 도모를 위한 시설은 손자, 손녀들을 이 곳으로 불러모으는 좋은 핑계거리다.

(자료제공: THE CLASSIC 500 한성희 과장)

EXPERT'S VIEW

Vision of Home Life 2020

“2020년 미래 홈라이프,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내외 미래학자, 트렌드 전문가, 디자이너 및 디자인 이력가들에게
2020년 미래 홈 라이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Charles L. Owen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공대(IIT) 명예 교수,
시스템디자인 리서치 이콘 창시자



이미 슬로건이 되어버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다 '자급자족'이 보다 나은 단어이며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다. 자급자족 시스템은 자원의 재생가능성 여부나 외부 자원에 대한 수요 없이 지속 가능하다. 2020년까지 10억 개의 자급자족 가정이 자원의 수요를 줄이는 놀라운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자급자족형 주택 진화의 열쇠는 진보된 기술의 배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과 자원을 덜 사용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여주는 혁신적 디자인이 중재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소비문화를 보존의 문화로 바꾸는 것으로 그 긍정적 영향이 일상용품에 사용되는 다른 자원들에게로 널리 확대될 것이다. 삶의 질리티는 복잡한 개념이다. 공간, 물질, 자원의 소비 감소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정이다. 공간을 다목적으로 만드는 디자인 개념과 기술을 사용해서 미래 주택의 공간이 절약될 것이다. 활동마다 각각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 생활과 성장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주택은, 삶의 질리티에 기본이 되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거주자가 참여하게 하는 적절한 **어프로치**를 취한다. 집단적으로, 이런 종류의 주거를 가진 공동체는 보다 독립적이 될 것이며 동시에 더욱 상호의존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공유하는 가정의 자급자족적 능력 때문이다.

Sustainability is now a watchword. But sustainability only means managing the use of resources so that they won't be depleted or damaged. Future living will demand much more. Self-sufficiency is a better term, and a goal well worth pursuing. Self-sufficient systems are sustainable without demand on external resources, renewable or not. One billion self-sufficient households by 2020 would be a formidable means for reducing demand on resources.

Key to the evolution of self-sufficient housing will be the deploy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 mediated with innovative design to maintain or improve quality of life while using less space and resources. Reducing household demand on public and private sector systems for water, food and energy will have major impact on these primary resources. Changing a culture of consumption to one of conservation will extend that positive impact to a wide range of other resources used for the artifacts of daily living.

Quality of life is a complex concept. That it may be achieved with reduced consumption of space, material and resource is an important assumption. Space in future housing will be conserved by using design concepts and technologies to make space multipurpose. We do not need a separate space for every activity. Housing treated as a support system for life and growth takes the right approach to engaging inhabitants in their own personal and social growth, the foundations of quality of life. Collectively, communities with housing of this kind will be more independent but at the same time also more interdependent because of their homes' self-sufficient ability to save and share resources.

유수진

PFIN 대표

외부로 외출해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의료활동 같은 많은 일들이 주거 안에서 해결 가능해지고, 또한 외부에 있으면서 내부의 주거 업무를 쉽게 해결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스마트 홈은 예약된 기능에 따라 주로 작동한다면 앞으로의 스마트 홈은 주거자들의 바이오 리듬이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즉, 바이오 테크놀러지와 홈 테크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쇼핑 역시 홈으로 연결하거나 집에서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고 태양열을 통해 생활하는 등 거주지가 다른 곳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기완결적 생태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건물들과 도시들이 현재 많은 곳에서 기획 중이다.

김보성

IDEO 시니어 디자이너

Work Life와 Private Life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으며, 장소의 개념이 불분명해 집에 따라 Tele-Presence 및 자유로운 Modality의 지원, 이를 손쉽게 스위칭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치 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Task Computing 환경 (장소와 상황에 맞게 어디에나 준비된 컴퓨팅환경)이 마치 팬과 종이 어디에나 있듯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분산된 센서들 (Distributed Sensors)이 곳곳에서 정보들을 읽고 기록하며, 인공물들간의 생태계를 이룰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센서들은 신체와도 연결되어 (Biosensors)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벗어난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거 공간에 들어올 것이다.

Robin Roy

영국

Professor of Design and Environment /
Open University

가정의 커뮤니케이션 허브에 TV, 컴퓨터, 인터넷, 전화가 통합되고, 온라인 정보로 자동차 같은 물품의 세어링, 렌탈, 임대 용이해진다. 가정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가능한 개인적 탄소 허용량이 도입된다. 대가족, 독신, 싱글부모와 자녀, 노인, 공동 가구, 의도적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집단의 변화로 인해 주택이 유동적으로 디자인되거나 맞춤 설계되며 맞벌이 부모로 인해 조부모의 육아도 증가한다. Inclusive Design과 Assistive Technology의 도움으로 독거하는 노인들이 생겨난다. 정원과 농지에서 과일, 채소, 가금, 꿀 등의 생산이 증가한다.

Integration of TV, computing, internet, telephone in home communications hubs.

More sharing, rental and leasing of goods (e.g. vehicles) facilitated by online information.

Possible introduction of tradable personal carbon allowances to limit household carbon emissions.

Homes designed flexibly or customized to accommodate changing social groupings e.g. several generations (children, parents, grandparents); singles;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seniors; shared households; intentional communities.

Grandparents increasingly caring for grandchildren as parents have to work.

Seniors living independently at home with the aid of inclusive designs and assistive technologies.

More producing of vegetables, fruit, poultry and honey in gardens and allotments.

정연우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녹지화: 도시의 주거환경은 현재보다 훨씬 많은 녹지면적을 갖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지상 주차 구역은 지하로 내려가고 해당 구역은 녹지, 공원화 될 것이며 일부 간선도로도 급속히 지하화 되고 지상부의 녹지화가 진행될 것이다.

유연근무의 일반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유연근무형태가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점심 시간을 전후로 출퇴근 시간대의 러시아워가 분산되어 교통난은 다소 완화될 것이고 가용 시간의 확대로 새로운 소비패턴, 여가활동 패턴이 생겨날 것이다.

전자제품의 컨버전스, 자동화, 탈가사노동: 각종 가전제품의 융합화와 주방가전의 고도화로 가사노동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양쪽 배우자가 모두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보육, 자녀 양육과 관련한 신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이다.

시티 커뮤터의 일반화: 출퇴근 및 근거리 이동을 위한 자동차의 사용이 렌탈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로 나타나게 된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상에서 이용할 때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화 된다.

2020 HOME LIFE SCENARIOS

“[urtrend.net](#)이 상상해 본
2020년 미래의
홈라이프 시나리오”

2020 FUTURE HOMELIFE SCENARIOS

2020 미래 홈라이프 시나리오

KDRI의 미래 거시 트렌드 예측 시스템인 Future Zodiac과 라이프스타일 예측 시스템인 Future Minds를
 미시 디자인 트렌드 예측 시스템인 urtrend.net의 맥락에 적용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는 거시 환경, 사람, 사물의 세 가지 맥락을 입체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이며 이 맥락을 구체화한 시나리오는
 미래의 홈라이프를 다양한 시점에서 보여주고 미래에 다가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Scenario 1 디자이너 K 실종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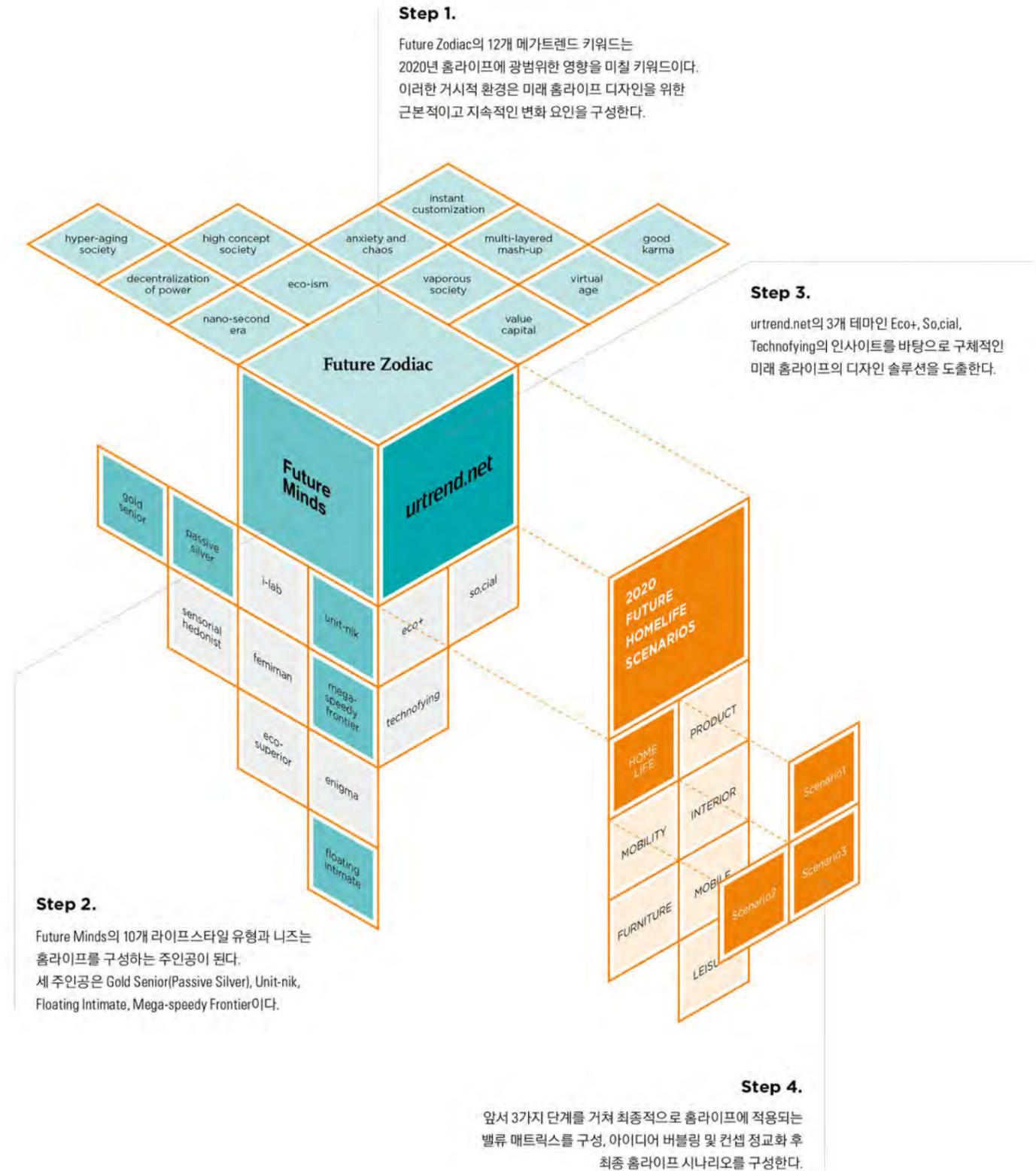
초고령화 사회의 주거 공간인 S타운에서 벌어지는 실종 사건을 배경으로, 2020년 액티브 시니어들의 삶과 생활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Scenario 2 에이미의 이별 여행

즉각적 개인화가 일상화된 미래 사회에 연인을 잃은 에밀리가 새로운 주거지로 여행을 떠나는 여정을 통해, 2020년 싱글들의 홈라이프를 상상해 본다.

Scenario 3 H씨 가족, 북극곰을 구하라!

개인적 삶의 추구하고 동시에 공동선을 지향하는 미래의 소규모 가족 형태인 H씨 가족이 그들에게 던져진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의 가족상과 주거 생활의 모습을 조망한다.



Scenario 1

디자이너 K 실종 사건

시놉시스

2020년,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60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진 시기. 경제력을 가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계층으로 굳어져 간다.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른바 '스타운'이라는 도심의 공동 주거 단지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스타운은 최첨단 기능을 바탕으로 최고의 편리함과 안전을 자랑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 스타운을 설계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었던 국민적 디자이너 K의 의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K의 실종 수사를 맡은 J는 최첨단 기능으로 설계된 스타운을 조사하던 차, 도저히 이 공간에서는 범죄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수 없는 완벽히 안전한 집이라는 것에 놀라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한다.

시나리오의 배경

초고령화 사회

일본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2018년이면 초고령화에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수명 연장과 관련한 의료, 은퇴 후 레저 생활, 노인을 위한 보안 안전 산업, 홈오피스 산업 등 새로운 영역에서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노령화 사회의 문제를 날을 수 있는 신구세대의 갈등,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과 인종 갈등, 복지 부담의 증가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대비가 필요하다.

시니어 세대의 감성과 지혜

단순히 노령 시대가 사회의 돈과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노령 세대의 지혜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 진다.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지금 기성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활기차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이다. 이들은 60세가 인생의 전성기라 믿으며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자서전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를 경청하라.

도시 귀환자들의 공동 주거 공간 '스타운'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난 후, 별거나 이혼을 했거나, 혹은 너무 한곳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교외 거주자가 도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귀환자들은 일정 수준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 있고 문화 시설을 기꺼이 누리길 원하며 도시에서의 달콤한 생활을 누리면서 멋진 삶을 꾸리길 원한다. 이는 과거 도시를 차지했던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남을 의미한다.

불안과 혼돈의 시대

21세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전쟁의 공포,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유행병의 위협, 자본주의의 불확실성 등은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걱정거리다. 오히려 개인의 걱정과 불안 심리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거 생활에는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고 있을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스타운은 범죄나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거 단지로 묘사된다.

등장 인물

K - 65세, 남자, 건축, 환경, 제품 분야의 국민적스타 디자이너

현역 최고의 디자이너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두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단지인 스타운을 설계하던 중 갑자기 실종



T - 15세, 남자, 무직

겉보기엔 어리고 반항적으로 보이지만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매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민한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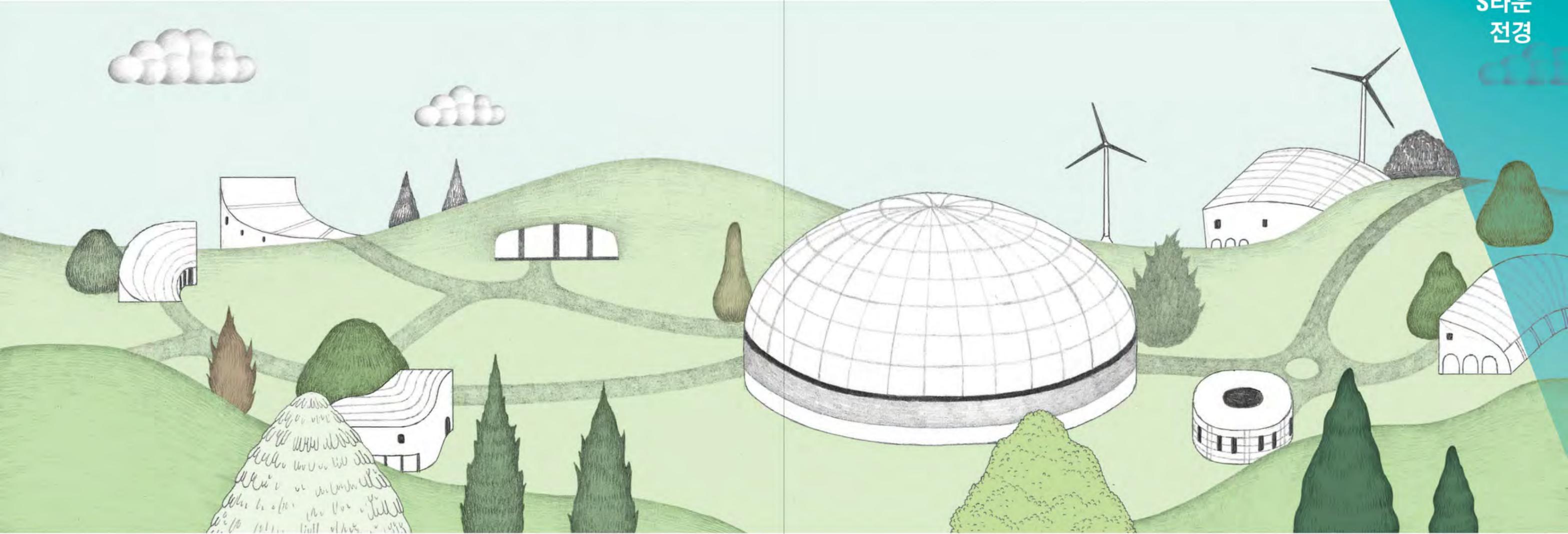
J - 32세, 여자, 경찰

어렸을 적부터 실록 홈즈처럼 탐정이 꿈이었지만 30세가 되어서야 경찰이 된 인물. 본인은 항상 진지하게 사건에 임한다고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덩벙거리고 어리숙함



폴리 - 경찰견

J의 충직한 파트너



도심 속에 자리 잡은
S타운의 전경,
S타운은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드넓은 녹지와 여러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1. 녹색 도시 구축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LED 및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주거 형태가 대거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연의 원리를 적용하여 설계되고, 인공적인 도심에서 자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하려는 친환경 운동이 펼쳐지며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상용화된 도시가 생겨난다. 이의 일환으로 친환경 도시 내부에 건설되는 건물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 빌딩에 발전소를 갖춘 '스마트빌딩'이 그 주축을 이룰 것이다.

2. 인공정원 스마트돔

도시 농업, 혹은 수직 농업이라 불리는 도심의 현대화된 공간을 농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인공 정원이 확산된다. 이 공간은 자연의 생존 조건을 그대로 모방하여 인간에 이로운 최적의 농작물을 생산한다. 이 스마트돔은 생태학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 텃밭을 가꾸는 노동의 즐거움을 도시 안으로 끌어 들인다.

3.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

CO₂ 소비를 50~70%, 에너지 낭비를 30~50%로 감소 가능한 빌딩을 말한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호스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건물 및 주거 단지의 에너지, 물, 난방과 환기, 조명뿐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추적해 관리가 가능하다.

4. 공동 경작과 분배, 작은 경제

공동 농장에서 수확된 농작물은 소규모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유통된다. 이 작은 경제체제에서는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지역 화폐 등이 유통되기도 한다. 이는 친환경적 삶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확대된다.

Scenario 2

에이미의 이별 여행

시놉시스

2020년, 여성과 사회진출과 자존감의 상승으로 싱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과 양육의 부담을 지기보다는 동거나 홀로 사는 삶을 택해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들은 유동성이 높으며, 국가보다는 도시 중심의 소비,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 창출을 이끌어어나가는 계층이 된다.

이야기는 2020년을 살아가는 싱글 에이미가 최근에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며 시작된다.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T타운은 다양한 콘텐츠가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도시형 주거단지이다. 그러나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새겨진 공간을 떠나, 그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주거 단지를 찾아 나서게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주거 단지를 찾아가는 동안 그녀는 혼자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시나리오의 배경

'나'를 찾는 문화

핵가족과 저출산으로 개인화된 삶이 당연시되면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무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한 시간과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싱글 족들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형태를 낳아 서비스, 주거, 보안, 자기개발, 시간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A의 엄마'로서의 삶과 소비보다는 '나는 B이며, 엄마이며, 전문직장인'이라는 '나'를 잃지 않는 삶과 소비를 영위해 나간다.

소유가 아닌 소비로서의 주거공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집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소비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사라지고 있는 평생직장의 개념과 쉬워진 주거지역의 이동은 이런 변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너무 한 곳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교외 거주자가 도시로 돌아오기도 하며,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또 주말에는 외곽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중에는 도시의 주거공간에서 보낸다. 계속해서 지리적 환경을 초월한 이동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와 함께 주거공간은 고정된 소유재산으로서가 아니라, 소비를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글로벌 모빌리티가 증가하며, 국가 단위의 개념보다는 도시 단위의 정체성과 개념이 중요해진다. 소비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공간과 파생될 서비스들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모바일 + 라이프, 오피스, 인포메이션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과 모바일 오피스의 발전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이런 라이프스타일은 노마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코쿰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은 오피스, 보안, 서비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 사용 구조가 생성된다. 가령 개인맞춤 서비스를 위해 정보가 사용되거나, 컴퓨팅을 통한 복잡한 절차의 단순화 등. 특히 클라우드 시스템의 보안 발달은 모바일 오피스를 지원하여 어디서든 보안과 HR관리를 지원하며, 장소가 상이해도 직원들의 담합과 협동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 이런 모바일 문화는 새로운 플랫폼 중심 문화로 콘텐츠와 정보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등장 인물



에이미 - 34세, 여자, 행정업무 사무직원

혼자의 삶을 즐기면서도 친구들과 네트워킹으로 함께하는, 자신을 위한 소비에는 아끼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알렉스 - 30세, 남자, 직업 미상

겉보기엔 개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사람 사귀기를 좋아 하는 남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 하는 것을 좋아함.



범블비 - AI 운송모듈, 에이미의 충직한 모듈러 노마딕 하우스

운송부터 집안관리까지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능숙한 집사같은 AI Automobile.

Scenario 3

H씨 가족, 북극곰을 구하라!

시놉시스

이야기는 Z주택에 사는 H씨 가족에게 숙제가 던져지면서 시작된다. H씨 가족은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의 기회가 많지 않은 2020년형 신대가족. 이 가족에게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던져진 것이다. 그 문제는 다음 아님, "지구온난화로 떠다니는 얼음 위의 북극곰을 구하라"는 것. H씨 가족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시나리오의 배경

전자 가족 Electron Family

1-2인으로 이뤄진 가구를 의미하는 단어. 현대 가족의 전형이었던 핵가족(Nuclear Family)이 더 분화된 형태를 의미한다. "핵 주위를 도는 전자(電子)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전자가족'이라 지칭한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전체 가구의 약 50%를 1-2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전자가족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현대 사회의 개인화된 삶도 이에 한몫 한다. 이런 변화는 그간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가족 공동체가 해왔던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은 보다 가상적 네트워크 공동체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족화되지만 반면에 대가족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가족도 늘어난다. 이들이 다시 뭉쳐 사는 이유는 역시 경제적 이유가 크다. 아직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층에게 어른과 함께 사는 것은 주거 비용과 육아 문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당연히 윗세대도 외로운 노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론 이 신대가족은 유교적 가부장적인 전통을 기초로 하지만 확고한 권위와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체사회의 공동선 추구

액체의 유동성에서 더 나아가 확산적이고 폭발적인 기체의 속성을 가진 사회. 기체 사회 속의 개인은 독립된 분자이며 주체적 힘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발적 필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강한 응집성을 보이며 폭발력있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느새 금세 해산되고 개인화되는 이합집산적 성격을 띤다. 이 같은 사회에서 개인들의 자발적 융합은 바람직한 미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다. 프로보노(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 운동의 증가나 사이버 민병대의 활동, 책임감 있는 소비자들의 기부적 소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노력을 보인다.

힘의 분산과 새로운 가족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간 네트워크의 발전은 정치, 경제적 힘의 분산을 초래했고, 사회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개인들의 목소리를 부상시켰다. 또한 다양한 국제적 관계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가족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반드시 혈연을 기본으로 하지는 않는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결연가족 등 여러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징후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대가족에는 보다 수평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의사 소통의 방식을 가지며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따로 또 함께'라는 자유로운 주거의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되기 보다 지역 문화의 작은 시장에 주목하고 지역 경제의 가치를 생산하는 가족 중심의 사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H씨 부부가 포르투갈이라는 오랜 타지 생활을 기반으로 생산한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가상 시대의 집단지성과 창의성

사람들은 점차 사이버 세계 속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관계에서 보다 친밀감을 느끼며, 공간 자체도 물리적 공간보다는 사이버 세계를 더 실감나게 인식할지 모른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여 첨단 제품을 구상하는 기회 영역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가상 공간 속에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주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불어 증강현실의 상용화와 같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적 시너지가 다양한 산업환경에서는 물론, 가정내에서 소소한 의사결정, 문제해결에도 적극 활용되는 미래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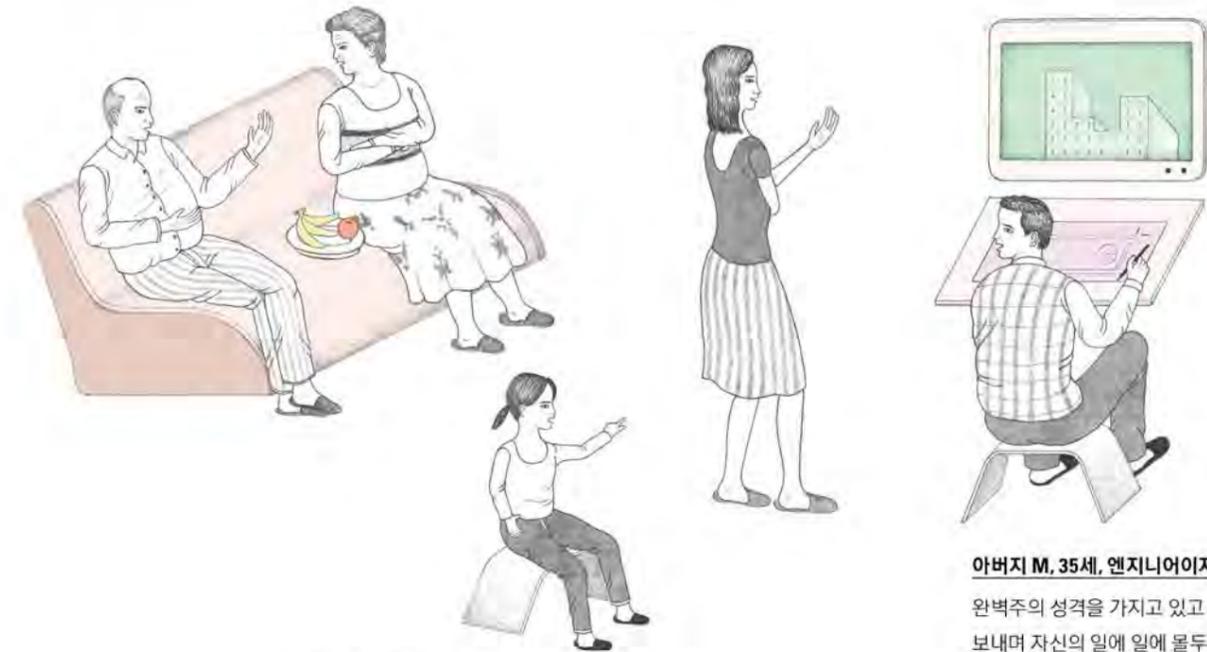
등장 인물

H씨 부부, 어머니 H씨의 부모

오랜 동안 포르투갈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이 집의 1층에서 포르투갈 식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어머니 H, 35세, 전문직 종사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가정을 꾸미길 원한다. 어렸을 적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부모에 대한 애정 섞인 원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차츰 극복 중이다.



딸A, 9세, 초등학생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소녀. 동물을 좋아하고 그 또래답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다.

아버지 M, 35세, 엔지니어이자 가구 디자이너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며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씩씩한 사위이지만 장모와의 갈등을 가진 아내와의 관계를 고민한다.

urtrend? YOU ARE TREND!

사용자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소비자가 트렌드를 이끄는 시대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합니다.
urtrend.net 만의 독창적인 시스템과 국내외 트렌드 전문단의 검증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미래 소비자의 잠재된 지향 가치와 감성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미래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창조형 트렌드 Collective Creativity

Urtrend.net 사이트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이 생각과 감성을 교류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의 상호교류 속에서 미래 트렌드를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집단 창의성 기반의 트렌드를 예측합니다.

독창적인 시스템 Originative Process

KDR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유일한 사용자 중심의 미래 디자인 가치 예측 시스템으로, 총 3단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 1 FUTURE ISSUE GENERATION

- Note & Column

트렌드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 화두를 도출

Step 2 IMAGINATION & CREATION

- Talk

사용자들간의 생각 교류를 통해
미래를 상상, 창조

Step 3 FUTURE USER VALUATION

- Value Voca

교류과정 속에 내재되어있는
미래의 공유 가치와 감성 분석

1

urtrend WEB SERVICE

urtrend.net 사이트를 통해 주목해야 할 분야별 트렌드 정보 뿐 아니라 미래 화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및 상상을 관찰하고,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Talk	미래 화두에 관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
Issue Note	세계 각국의 캐스터들이 포착한 거시 및 미시적 트렌드 뉴스
Column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분석한 트렌드 이슈와 전망
People	전문가와 사용자를 이어주는 소셜 네트워크의 장
Newsletter	새롭게 올라온 토크와 트렌드 정보의 weekly 메일링 서비스

2

urtrend PREMIUM SERVICE

유료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미래 잠재 가치 분석 결과와 메가 트렌드 예측을 담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Publication	연 2회 트렌드 이슈와 사용자 잠재 가치 및 감성특성 분석을 담은 Half-yearly / Annual Report 발송
Seminar & Roadshow	트렌드 정보 교류 세미나 및 전시 무료초청

3

urtrend CUSTOMIZED PREMIUM SERVICE

기업 특성에 맞는 거시적 트렌드와 구체화된 인스피레이션을 제시하고, 미래 화두에 대한 디자인 전략과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Trend Foresight	기업특성에 맞는 미래 화두 운영 및 디자인 가치 예측
Future Scenario Planning	미래 라이프스타일과 디자인 시나리오 개발
Future Design Strategy	사용자의 잠재 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전략 제안

가입문의

KDRI |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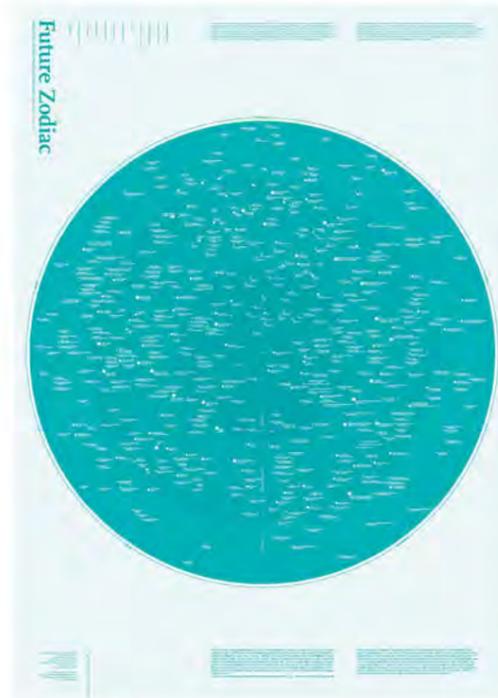
Tel +82 2 880 8964
E-mail dcenter@snu.ac.kr
Web www.urtrend.net / www.kdri.org

FUTURE ZODIAC

미래 거시 트렌드 예측 시스템

마치 우주의 광활하고 막막한 어둠처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미래. 과거 불확실한 미래에 빛나는 별들이 먼 길을 떠나는 지표가 되었듯, 미래 디자인을 읽는 것을 별자리를 창조하는 과정에 비유하여 미래에 대한 징후를 통해 미래의 길을 창조한다.

2020년 전후하여 디자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12개의 주제를 예측하고, 12개 주제의 별자리를 읽으며 미래에 대한 징후를 제시한다.



01. 초고령화 사회 02. 하이컨셉 사회 03. 즉각적 개인화 04. 힘의 분산과 다원화 05. 녹색사회 06. 불안과 혼돈의 기준 07. 기체 사회 08. 10억분의 1초의 시대 09. 가치자본 10. 가상 시대 11. 다층적 융합화 12. 공동선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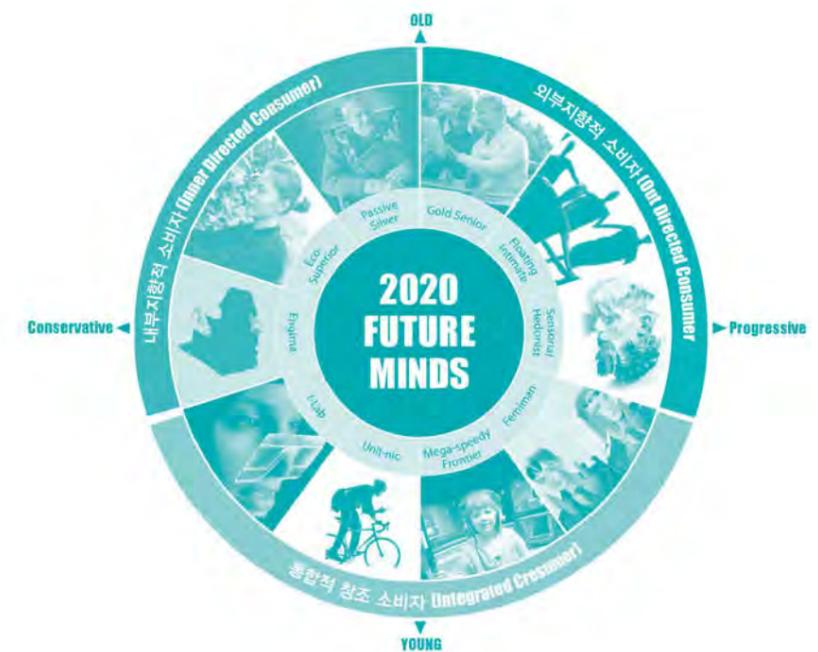
FUTURE MINDS

미래 라이프스타일 예측 시스템

행동을 끌어내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회가 변화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에 영향을 끼친다.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2020년에 소비자 행동을 변화할 미래의 마음을 예측한다.

Future Minds는 과거와 현재의 세대별, 성향별 맥락관계 분석을 통해 2020년 소비자 행동을 좌우할 라이프 스타일인 핵심 마인드 10개를 제안하며, 사람들의 관심, 행위, 생각에 대한 마인드를 분석한다.



01. 골드 시니어 02. 패시브 실버 03. 플로팅 인터메이트 04. 에코 슈퍼리어 05. 아이 랩 06. 센소리얼 헤도니스트 07. 유닉 08. 이니그마 09. 페미앤 10. 메가 스피디 프론티어

urtrend.net

KDRI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Korean Design Research Institute



9 788991 056534
ISBN 978-89-91056-53-4